

『SK 배터리 코치』로 첫 1군 지도 박경완



SK 박경완 배터리코치는 처음 1군 지도를 맡게 된 올 시즌 새로운 SK 포수진을 만들어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그는 백업 포수 발굴과 볼 배합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스포츠동아DB

“이제원 타격 좋지만 수비는… 뒷받침할 포수 찾는게 중요”

백업 포수 실력 향상·볼 배합 중점 지도

SK의 2016시즌에는 몇 가지 물음표가 있다. 8~9회를 책임질 셋업맨과 마무리투수의 낙점 등 굵직한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새로운 주전 포수 발굴도 중요한 숙제다.

FA(프리에이전트) 자격을 얻은 기존 주전 포수 정상호(34)가 LG로 이적하면서 안방에 공백이 생겼다. 공백을 메울 자원은 있다. 타격이 뛰어난 포수 이재원(28)이 풀타임 주전 포수로 도약할 시기가 왔다.

선수만 첫 도전을 하는 것은 아니다. 쌍방울, 현대, SK를 거친 '포수 레전드' 박경완(44·사진)이 새롭게 1군 배터리 코치로 부임했다. 박 코치는 2013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뒤 2014년 퓨처스(2군) 감독과 지난해 육성총괄을 역임했다. 그는 “매일 입던 유니폼을 작년에는 한 번도 못 입었다. 유니폼을 입었을 때가 행복하다는 걸 느꼈다”며 처음 유니폼을 벗고 현장을 떠나있던 지난해를 돌아봤다.

포수만을 가르치는 배터리 코치는 그에게도 새로운 도전이다. 현역 시절 최고의 포수로 각광 받았던 그가 직접 선수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해줄 기회다.

현장을 떠나 지켜본 SK 안방의 현실은 어떨까. 박 코치는 “4명 정도의 1군 요원 중에 타격은 (이)재원이 가장 나은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수비는 아니다. 재원도 긴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재원이 지명타자로 나설 때는 체력이 8~9월에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포수로 많이 나온 작년에는 그보다 한 달 먼저 떨어지더라. 체력소모가 커 타석에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럴 뒷받침할 포수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타선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재원을 위해 다른 포수들의 활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한 발 멀리서 지켜보니, 투·포수간 호흡의 중심인 볼 배합 등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보였다. 백업 포수들의 실력 향상과 투수 리드에 대한 노하우에 초점을 맞춰 지도할 생각이다.

박 코치는 올 겨울 현역 시절을 떠올리며 몸을 만들었다. 스프링캠프에서 직접 포수 장비를 차고 선수들에게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다. 그는 “kt 조범천 감독님이 은퇴 직후 처음 나를 가르쳐주실 때 직접 시범을 보이며 가르쳐주셔서 이해가 빨리 됐다. 나 역시 말로 하는 것보다는 몸으로 보여주겠다. 나의 첫 포수 제자들이다. 내 능력을 확인할 좋은 계기다”고 말했다. 이영노 기자 nirvana@donga.com

한화서 원 제이크 폭스, 필라델피아와 마이너 계약

미국의 야구전문매체 베이스볼 아메리카는 2015시즌 한화에서 원 제이크 폭스가 메이저리그 필라델피아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했다고 전했다. 폭스는 지난해 한화에서 38경기에 출전해 타율 0.278, 7홈런, 25타점의 성적을 거뒀다. 내·외야수는 물론 포수까지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로 기대를 모았으나,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이 거듭됐다.

롯데, 日 전지훈련 팬 참관단 패키지 상품 출시

롯데는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일본 가고시마 전지훈련 팬 참관단 패키지 상품을 출시한다. 이번 패키지는 롯데 선수단 훈련 참관, 선수단과의 저녁식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포함하고 있다. 선수단과의 저녁식사 이벤트에는 주장 강민호를 비롯해 최준석, 정훈, 황재균, 손아섭, 송승준, 손승락, 윤길현, 고원준, 조쉬 린드블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당 상품 판매가는 74만9000원. 051-467-2345.

삼성 ‘원년 에이스’ 황규봉, 별이 지다

대장암 투병끝 63세 일기로 별세

경북고 시절부터 에이스였던 특급 투수 1973년 靑선수권 호텔 화재로 허리 부상 한국화장품사 재기·프로야구 원년 15승 뒤늦게 별세소식 전해져 야구계 안타까움

또 하나의 별이 졌다. 프로야구 원년 삼성의 에이스로 활약한 황규봉 전 삼성 코치가 대장암으로 투병생활을 하다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 뒤늦게 소식을 접한 야구인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18일 오전 6시30분 63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다. 발인은 20일 오전, 장지는 고향인 경북 성주의 선산이다.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장례식장 빈소를 지킨 매제(손아래 누이의 남편)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해 11월 병원 검진을 통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곧바로 입원해 치료를 시작했지만 이미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전이돼 있어 결국 두 달 만에 눈을 감고 말았다.

고인은 그동안 야구계와 연락을 끊고 살아 사방 소식을 대부분의 야구인들도 몰랐다. 1989년 삼성 코치를 끝으로 유니폼을 벗은 뒤 지인과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순탄치 않았다. 연이어 사업에 실패하면서 경제적으로 궁핍해졌다. 그러면서 야구인들과 교류도 끊었고, 가족과도 헤어진 채 부산에서 홀로 살아왔다.

매제는 19일 스포츠동아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병원에서 검진을 전혀 하지 않았다. 참고 참다 허리가 너무 아파 작년 11월 중순쯤 병원을 찾았는데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고생을 많이 했다. 야구계를 떠난 뒤 사업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나락으로 떨어졌다. 운동선

수 출신이라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데, 본인의 처지가 어려우니 야구인들과도 연락을 끊고 살았다”며 안타까워했다. 고인과 동기로, 현재 일본 미야자키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영남대 이선희 투수 인스트럭터가 뒤늦게 소식을 접한 뒤 곳곳에 연락했지만 빈소를 찾은 야구인은 드물었다.

고인은 어릴 때부터 천부적 재능을 발휘한 특급투수였다. 1년 선배인 남우식에 이어 1970년대 초 경북고의 에이스로 활약하며 팀을 전국 최강으로 이끌었다. 동기 이선희와 더불어 ‘유규봉-좌선희’로 불리며 전국에 이름을 알렸다.

고려대 1학년 때인 1973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 국가대표로 발탁됐을 정도로 한국 마운드의 미래로 평가 받았다. 그러나 대회 도중 숙소인 엠파이어 호텔이 전소되는 대형 화재가 발생해 2층에서 뛰어 내리다 허리를 다친 그는 이때의 충격으로 3년 동안 한양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후에도 고소공포증을 겪었다.

묵직한 강속구가 주무기였지만 한동안 스피드를 잃었고, 점차 구속을 되찾아 재기에 성공했다. 1976년부터 1981년까지 한국화장품사에서 활약하다 1982년 프로야구가 출범하자 삼성 유니폼을 입었다. 전성기가 지난 시점이었지만, 원년에 15승(11패·방어율 2.47)을 기록하며 이선희-권영호와 함께 삼성의 ‘15승 트리오’로 맹활약했다. OB 박철순(24승)에 이어 다승 공동 2위. 또 19세이브포인트(11세이브+8구원승)로 원년 구원왕을 차지했다.

1984년(10승2패·4세이브)과 1985년(14승7패·4세이브) 2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를 따낸 뒤 1986년 3승(5패·3세이브)을 끝으로 은퇴했다. 프로 통산 154경기, 48승 29패24세이브, 방어율 3.08의 성적을 남겼다. 1987년부터 1989년까지 삼성에서 코치를 지낸 뒤 야구계를 떠났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삼성의 원조 에이스 황규봉이 18일 6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고인은 프로야구 출범 원년인 1982년 15승11패19세이브포인트, 방어율 2.47로 역투했다. 다승 공동 2위에 올랐고, 원년 구원왕을 거머쥐었다. 사진제공 | 삼성 라이온즈

“연락 끊겨 걱정했는데 이런 소식까지”…“별명이 황소였을 정도로 성실했다”

야구인들이 추억하는故 황규봉

“오랜 만에 듣는 소식인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프로야구 초창기 삼성의 에이스로 활약한 황규봉 전 삼성 코치가 대장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는 소식에 야구계는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1989년 삼성 코치를 마지막으로 유니폼을 벗은 뒤 야구인들과 연락을 끊고 지냈기에 충격이 더 큰 듯했다. 특히 한때 한 술밥을 먹으며 동고동락했던 삼성 출신 야구인들은 뒤늦게 소식을 접하고는 한동안 침묵했다. 1953년생으로 요즘으로 보면 한창 나이

인 63세에 세상을 떠났으니 그럴 만도 했다. 그들이 기억하는 ‘야구선수 황규봉’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프로야구 원년부터 삼성에서 배터리로 호흡을 맞춰온 이만수(58) 전 SK 감독은 기자회견과 통화에서 부음을 전해 듣고는 “그동안 야구인들과 연락이 끊겨 어떻게 살고 계신지 전혀 몰랐는데 이런 소식을 들어서 너무 안타깝다”고 애통해하면서 “선배님은 호인이셨다. 강속구 투수로 공이 쇳덩어리처럼 무겁게 들어왔다. 슬라이더도 아주 좋았다. 경북고 시절부터 황태자였는데, 프로에 들어올 때는 사실 내리막 길이었다. 대단한 투수였다”고 추억했다.

김시진(59) 전 롯데 감독도 충격을 받았다. 현재 제주도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 김 전 감독은 “나보다는 4년 위였는데 1970년대 후반 실업야구 시절이 전성기였다. 키도 크고 힘도 좋아 공이 묵직했다. 얼굴도 잘 생겨서 경북고 시절부터 팬들이 많았다. 말이 거의 없었지만 좋은 분이였다.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다니 허무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동기인 영남대 이선희(62) 투수 인스트럭터는 “황규봉은 원래 나보다 1년 선배인데 경상동 때 1년 유급해 나하고 동기가 됐다. 경북고 시절부터 에이스였다. 난 황규봉 뒤에서 받쳐주는 투수였다”며 “별명이 황소였을 정

도로 힘도 좋고, 성격도 우직했다. 성실하고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는 스타일이였다. 공이 쇳덩어리처럼 들어갔다. 연투도 참 많이 했다. 요즘처럼 관리를 잘해줬으면 더 오래 선수생활을 했을 텐데, 불운한 투수가 됐다”고 고인을 추억했다. 그러면서 “은퇴하고 사업에 실패하면서 동기들과하고도 연락을 끊고 혼자 살았는데, 오랜 만에 들은 소식이 이런 소식이다. 내가 여기저기 연락을 취하기는 했지만, 빈소에 야구인들이 많이 가보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 나도 일본에 전지훈련을 와 있어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주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고 씁쓸해했다. 이재국 기자

3연속 입장료 동결…롯데 진짜 ‘Fan First’

사직구장 시설보수 31억원 투자도 ‘당장 손해보더라도 팬 잡겠다’ 의지

롯데가 달라진 징표를 단순히 프리에이전트(FA) 선수들에게 거금을 안겨준 것이나, 연봉협상에서 후하게 인심을 쓴 것으로 재단하면 곤란하다. 과거 롯데도 이런 일들은 했다. 진정한 변화의 핵심은 “팬들에게 돌려주려는” 마음이 읽히는 지점이다.

롯데 프런트가 2016시즌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Fan First’가 번지르르한 구호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액션으로 나타나고 있다. 롯데는 2016시즌 사직구장 티켓 가격을 전 좌석 동결했다. 2014시즌 이후 3년 연속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2012시즌까지 5년 연속 100만 관중을 돌파했던 롯데다. 그러나 최근 3년 관중은 연평균 80만명 안팎 수준이었다. 사직구장의 객단가가 골짜인 것을 고려하면 최소한 주말요일에 10%라도 할증을 붙이는 것을 고려할 법했지

만, 그 유혹을 뿌리쳤다. “지난 3년간 팬들을 볼 면목이 없어서…”라는 롯데 관계자의 말 속에선 어떻게든 부산 민심을 되돌리고픈 절박함이 묻어났다.

롯데는 2016시즌을 앞두고 사직구장 조맹탑(20억원)과 화장실(8억원), 야구장 흙(3억원)을 교체하는 데 총 31억원을 투입한다. 원래 이 일은 야구장의 주인인 부산시가 해야 할 의무인데,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에 롯데가 쾌적한 관람과 최적의 경기력을 위해 지출을 감행하기로 결단했다. 롯데 최규덕 홍보팀장은 “노후화된 사직구장을 더 이상 둘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올해로 야구장 위·수탁 계약이 종료되는데, 부산시가 향후 재계약 협상 시 이런 롯데의 노력을 평가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과거 롯데 야구단의 노선은 흑자추구 또는 적자감소에 방점이 찍혔다. 최대한 모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뜻은 가상했으나, 프런트 수뇌부가 비용절감에만 목을 매달다보니 팬 서비스는 소홀해졌고 ‘인색하다’는 이미지가 뇌리에 박혔다. 성적마저 떨어지자 팬들은



롯데가 2016시즌 사직구장 티켓 가격을 동결하고, 야구장 시설보수에 31억원을 직접 투자하는 등 팬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만원 관중이 들어찬 사직구장의 전경. 스포츠동아DB

가차 없이 등을 돌려 ‘응징’했다.

현재 롯데 프런트의 지향성은 그동안 롯데가 경시했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있다.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통 크게 야구단의 그림을 그리겠다는 의지다. 야구단이 모기업에 도

움이 되는 길은 돈을 덜 써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 팬증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담겨있다. 사람이 모이면 돈은 따라온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